


보 도 자 료		 <div>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div>
배포 일자	2023. 6. 29.(목)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관리실</li><li>- 한기원 실장(051-797-4736)</li><li>- 이주원 전문연구원(051-797-4669)</li></ul>	
배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li></ul>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a href="http://www.kmi.re.kr">www.kmi.re.kr</a>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현장 현안 공유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기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청, 청장 윤종호)은 6월 28일(수)에 KMI 1층 대회의실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이 공식적인 정책연구협의회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15년 KMI의 부산 이전 이후 처음이다.

윤종호 부산청 청장, 공두표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및 주요 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KMI는 김종덕 원장, 연구 부원장 및 기획조정본부·해운연구본부·항만연구본부·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의 본부장 및 실·센터장들이 자리에 함께 했으며 KMI의 기관업무현황 및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연구과제 소개를 시작으로 양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KMI는 기관별 소통 창구 마련, 두 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세미나 개최, 데이터 공유 확대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어서 부산청은 수시연구 등 KMI 연구과제 제안 기회 확대와 동향분석 등 KMI 정기간행물 공유 대상 확대를 요청했고,

KMI가 제안한 정례 정책세미나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여 현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책연구 주제에 있어 ▲부산항에 대한 총 투자 대비 편익 연구 ▲북항 등 항만의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와 같은 폭넓은 관점의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했고 △북항재개발 등에 대한 정책자문을 할 경우 분야별 접근보다 해사·환경·레저·마리나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종호 청장은 “부산항의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가까이에 KMI가 있어 전문가 자문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자산이며, 오늘의 정책연구협의회가 두 기관 간 소통이 더욱 확대되는 희망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양 기관 구성원들이 업무상 자주 만나며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나 기관 차원에서 정책연구협의회로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이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소통 확대를 통해 KMI가 현장중심의 현안문제 발굴 및 관련 연구수행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협의회 사진



